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감사주일:**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삶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 ② **선교학교:** 선교학교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예배와 영적전쟁입니다(토우마타 선교사).
일시: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Chapel Room
- ③ **총회:** 남여 선교회 총회가 11월 27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④ **기도:** 기섭 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11월에도 계속합니다. (기도표 작성)
- ⑤ **감사:** 예배 후 교제를 위한 떡을 준비한 고성일(김봉희) 집사, 박병민(이기중) 집사, 꽃꽃이로 섬겨주신 이순옥 집사 감사를 드립니다.
- ⑥ **성경공부:** 30, 40대를 위한 성경공부반을 개설합니다.
개강: 11월 4일(금) 7시 30분 주제: 성령과 사역 장소: 이태한 목사 가정
- ⑦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NIBC(한동대 선교단체)

국내 선교지

- ▷밀알장애우 봉사

11월 교회 일지

- 이삭줍기 주일:
11월 20일 (주일)
- 대림절1, 총회주일:
11월 27일 (주일)
- 단기선교 출발:
11월 30일 (수요일)

교우 소식

개업: 전인우(양윤주) 집사 Mini Mart 11A Mount St. Auckland CBD

단기 선교 훈련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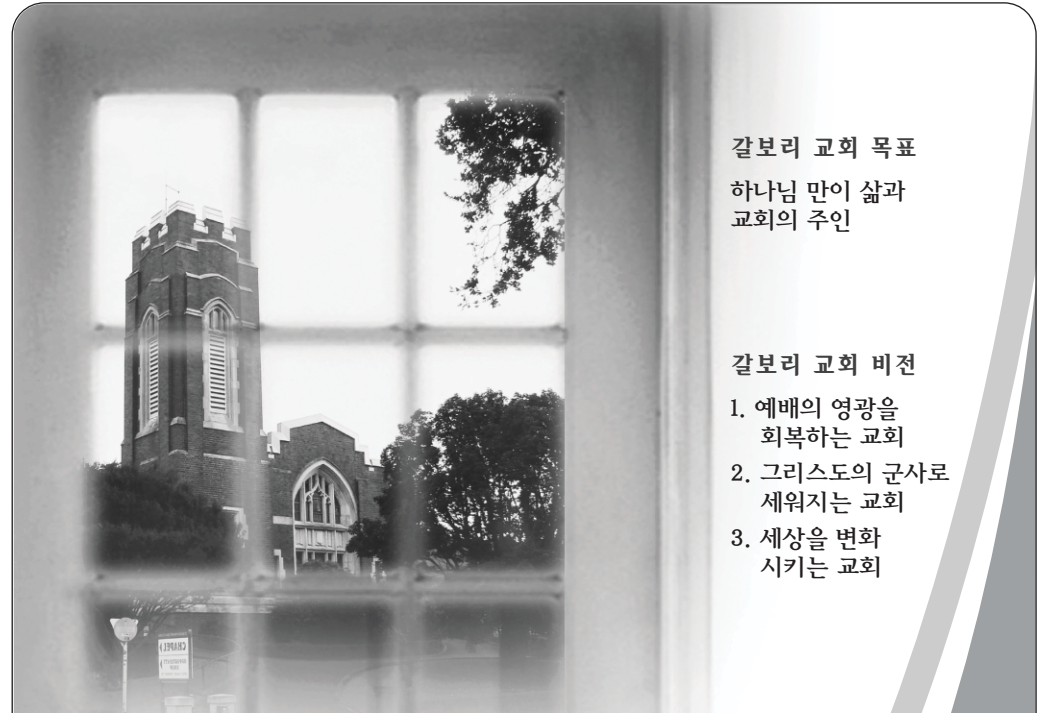
11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강의 주제		강사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안내			
6일	현석호	장연식	강동호	심경순/김광자	10/06	개강예배/ 바누아투배우기	이태한 목사
13일	고성일	김이삭	경덕현	심경순/김광자	10/13	선교와 세계관	배형근 강도사
20일	박덕철	방명아	박제용	심경순/김광자	10/20	선교의 역사	변영우 전도사
27일	박병민	원미경	정진택	심경순/김광자	10/27	선교사의 삶과 비전	선우형식 목사
					11/03	예배와 영적전쟁	토우마타 선교사
					11/10	단기선교의 이해	이태한 목사
					11/17	선교와 기도	안광국 목사
					11/24	바누아투 배우기/종강예배	진혜령 전도사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고용량 화학 요법으로 치료 중인 기섭이가 치료과정을 잘 이기도록. 항암주사로 약해진 모든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 고통의 현실에서도 감사하며 인내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섭 형제가 되도록. 골수 이식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3. 성도들의 생업에 하나님의 간섭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풍성하도록. 선교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참여하는 선교 학교가 되도록. 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도록.
4. 지진과 홍수로 혼란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터키와 태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구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태한
- 부목사 : 심창진
- 교육전도사 : 진혜령
- 시무장로 :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 휴무장로 : 김영길
-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 지휘 : 윤형권
- 반주 : 송민영, 유지선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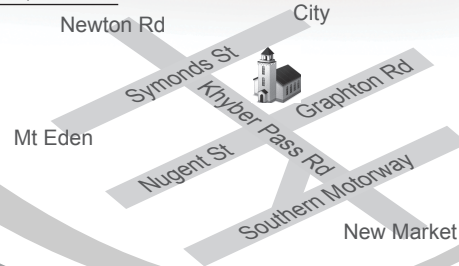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찾아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1부예배 주일 1:00PM 본당 유아부 주일 1:00PM 유아실
- 주일2부예배 주일 3:00PM 본당 아동부 주일 1:00PM Chapel
- 수요예배 수요일 7:30PM 본당 중고등부 주일 1:00PM 별관
- 새벽기도 금요일 5:50PM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추수 감사주일
2011년 10월 30일

주보 13권 44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00:3-4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27장	다함께
*성시교독	105. 감사절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429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광희장로	
연극	중고등부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감사합니다	이태한목사
세례식	집례자	
찬송	592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 순서 안내 | 다음 주 기도: 현석호장로 11월 13일: 고성일집사

건축 헌금 | 지난 주 헌금: \$1,440.00 총계: \$601,401.19

주일2부예배

오후 3시	청년찬양단		다함께
찬양	말은이		다함께
기도	인도자		다함께
성경봉독	심창진목사		다함께
설교	심창진목사		다함께
찬송	인도자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다함께
교회소식	인도자		다함께
축도	심창진목사		다함께

다음 주 기도: 장연식집사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수요찬양단		다함께
찬양	장덕수장로		다함께
기도	인도자		다함께
성경봉독	사사기 3:31-4:10	인도자	다함께
설교	삼갈과 드보라	이태한목사	다함께
합심기도	인도자		다함께
광고	인도자		다함께
찬송	288장	다함께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다함께

수요일예배 기도: 추미선권사
다음 주 기도: 유동연집사

갈보리 칼럼

감사의 어제와 오늘

1620년 12월 26일 청교도 102명이 미 대륙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날리고 기쁨의 합성을 지르며 몇 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되는 작은 배지만 평균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했음을 감사했고, 둘째 항해 중 2명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하였으며, 셋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였고, 넷째 큰 파도에 밀려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두 번 있었으나 모두 구출됐음을 감사하였으며, 다섯째 신대륙 접근 뒤 일부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 못하다 한 달 만에 플리머스에 안착하게 됨을 감사하였고, 여섯째 3개월 항해 중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하였습니다.

개척민의 초대 지사가 된 브래드 포드는 새 땅에 정착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올해에 넘치는 수확을 주셨다.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채소를 가꾸고 사냥을 하며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얻도록 축복해 주셨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지켜 주시며 질병에서 건져 주셨다.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나는 모든 순례자에게 선포한다. 주 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은 전원이 모여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이들은 조상의 풍요한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덤을 팔 수밖에 없었던 첫 겨울, 하루에 옥수수 5개씩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겨울을 지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1863년 남북전쟁이 극렬한 때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

하라.” 그 후 역대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발표하는 관례가 생겼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감사절 메시지에서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윌슨 대통령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덕에 대해 미국인은 감사를 드리자.” 라고 외쳤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가을날 하루를 추수감사절로 정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미국인의 위대한 전통”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과거보다 여건이 좋은데도 불평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100년 전의 미국인들은 꼭 바라는 것으로 16개를 꼽았는데 지금은 92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 영국에서 나라별 행복지수 조사를 했습니다. 178개국을 조사하면서 조사원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 돈이 많은 일본이나 중동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150등, 한국은 102등이었습니다. 1위는 우리의 이웃나라 ‘바누아투’ 였습니다. GDP가 세계에서 207위로 몹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네트 김슨은 그의 저서 ‘행복한 하루’ 에서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 이태한 목사